

LawSCHOOL 차오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7. MAR + APR



03/04



-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AU logo"/> 중앙대학교
- SNU logo"/> 충남대학교
- SNU logo"/>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안양대학교

“자기 안에
카오스를
지녀야만
춤추는
별 하나를
낳을 수 있다.”



- 프리드리히 니체 Friedrich Nietzsche

LawSCHOOL 창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7
03 + 04



발행일 2017년 3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이형규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이너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 04 로스쿨 탐방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찬 원장
- 08 파워인터뷰
정부법무공단 김민형 변호사
- 12 로스쿨 핫이슈
- 16 언론 속 로스쿨
- 22 행복 로스쿨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민성 학생
- 24 SPECIAL REPORT
명예를 걸어라!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 28 특별기고
법무법인 연 문승현 변호사
머니투데이 더얼팀 송민경 변호사
- 32 로스쿨 특파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재목 학생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석 학생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다운 학생
- 40 건강 멘토링
춘곤증
- 42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 책 읽어주는 변호사
- 50 문화가 산책
- 52 협의회 소식
- 54 MOVIE & DRAMA / LAW 낱말퀴즈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문')은 한 학년의 정원이 40명인 소규모 법전문이지만, 매년 훌륭한 법조인을 다수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작지만 강한 법전문'으로 자리 잡은 제주대학교 법전문을 찾았다. editor 박소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찬 원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를 양성합니다!



Q. 제주대 법전문이 2009년 첫걸음을 내디딘 뒤 현재까지 성과를 총평해 달라.

A. 제주대학교는 지역 환경이나 대학의 여건상 법전문을 유치하고 설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설립 후 우수한 교수진 확보, 내실 있는 커리큘럼 운영, 기숙사시설 완비, 제주특별자치도·삼다수·농협 등 지역사회 여러 기관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풍부한 장학제도 등으로 인하여 비록 입학정원이 40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법전문이기는 하나 높은 경쟁력을 갖춘 법전문으로 성장해 왔다고 자평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수의 연구역량, 변호사시험 합격률, 취업률 등 각종 지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

약 력

- 전공 민법(물권법, 불법행위법), ADR
- 학력 1986.02 제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1.02 건국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1995.02 건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경력
現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위원
前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시험위원
前 한국법학회 회장

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전문의 설립취지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 진리·정의·창조라는 제주대학교의 건학이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조성과 관련하여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를 교육이념으로 삼아, Glocalization을 선도하는 실천적인 법률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적인 법률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Q.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제주대 법전문 출신자 중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사무소(개업 또는 취업) 24명,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 4명, 공기업 2명, 대학병원 1명, 지방경찰청 1명 등 32명으로서, 제주지역 변호사 전체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기부터 5기까지 배출된 제주대 법전문 출신 변호사의 30%정도가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입학자의 지역분포와 비교하여 보면 이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등 지역규모가 전국 1%~2%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법전문 입학 자원에도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주대 법전문 입학정원 40명중 제주지역 출신자는 매년 20%내외(제주대학교 출신자는 이 중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입학생의 80%정도가 제주도 이외 지역의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Q. 서울권-지방권 법전문은 취업을 문제를 비롯해 각종 차별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 혹은 대안은.

A. 지방권 법전문 졸업자들은 취업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예컨대, 대부분의 대형로펌들은 1, 2학년 재학 중 법률실습을 통하여 검증된 학생들을 졸업 후 채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형로펌의 경우 지방권 법전문 학생들에게는 법률실습의 기회마저도 주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이로 인하여 대형로펌에 취업할 기회가 애초부터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대형로펌들의 태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쉽사리 바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로클릭이나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검사후보생을 뽑는 국가기관 만이라도 지방권 법전문 출신자들이 보다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각급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소재 기업체에서 해당지역 법전문 졸업자를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대 법전문은 최근에 로클릭이나 법무관, 검사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을 만들어 체계적인 지도와



더불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주대 법전문 출신 변호사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Q. 법전문을 '금수저 집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A. 어느 시대 어느 집단에서도 '금수저' 논란은 있게 마련이다. 법전문 교육에 있어서도 그 비난에서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폐지된 사법시험과 비교하여 말한다면, 법전문 출신자가 사법시험 출신자보다 더 금수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법전문을 통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법시험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 법전문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은 특별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하고 등록금도 전액 면제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전문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므로 생활비도 대폭 절감되며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법전문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법전문 학생 또는 법전문 출신자를 금수저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사법시험을 통하여 변호사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장학금이나 기숙사도 주어지지 않고, 학자금대출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법시험을 통하여 변호사가 된 경우가 오히려 금수저 집단이라고 해야 한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전원은 경제적 약자에게 있어서 ‘희망의 엘리베이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Q. 다음 달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A.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인원 기준 1회 87.1%, 2회 75.2%, 3회 67.6%, 4회 61.1%, 5회 55.2%로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현행 변호사시험이 일정한 점수를 받은 응시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지 않고, 해마다 1,550명 내외의 일정 수만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전원 졸업자는 변호사시험에 5년간 5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매년 응시자가 누적되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7회 이후부터는 응시자가 4,000명에서 4,500명이 되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38%에서 34%정도로 떨어질 전망이다.

법전원 제도 도입취지는 법률가를 시험에 의해 선발하지 않고 교육을 통하여 선발하는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선발방식은 법전원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법전원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합격자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과락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된 현시점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Q. 법전원마다 등록금 문제로 고민이 많다. 특히 제주대 법전원의 경우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이 50%에 달해 재정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제주대 법전원의 경우, 등록금은 연간 1천만원 정도로써 다른 국립대 법전원의 등록금과 거의 동일하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은, 2012년 36%, 2013년 33%, 2014년 38%, 2015년 39%이고, 2016년의 경우, 국비장학금(취약계층 장학사업 교부금)을 포함하여 48%에 이르고 있다. 제주대 법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삼다수, 농협, 제주은행 등 지역사회 여러 기관으로부터 연간 1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서 현재로서 장학금 확보는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법전원의 등록금과 장학금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개선할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법전원 등록금의 경우, 지금까지 사립대학은 연간 2천만원 내외, 국립대학은 1천만원 내외였는데, 2016년에 법전원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사립대학은 일률적으로 15%정도 인하하고 국립대는 향후 5년간 동결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법전원, 특히 사립대학 법전원은 재정적자가 더 가중되고 있다.

생각건대, 사립대학의 경우 일정한 상한선만을 정하고(예컨대 연 3천만원 이내) 그 범위 내에서 각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은 현재의 등록금보다도 훨씬 더 낮게 책정(예컨대 연간 6백만원 내외)함으로써, 법전원 지원자로 하여금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 법전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립대학의 경우 현재의 법전원 등록금으로는 매년 적자가 수십 억원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가 교수의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



문에 등록금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입학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면 장학금 지급률을 반드시 30%이상 유지하도록 통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경제적·사회적 취약자(특별전형자나 1,2분위자 등)에게는 국가가 국비(현행과 같은 ‘취약계층 장학사업 교부금’)를 이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추가적인 장학금은 대학별로 법전원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국립대학 법전원의 경우 등록금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위한 폭넓은 장학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Q. 한 법전원을 이끌어가는 원장으로서, 최대의 고민은 무엇인가?

A. 원장으로서 가장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이다. 해마다 실적이 나와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렵게 공부해온 학생들이 시험에 떨어지거나 시험에 합격해도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을 볼 때 원장으로서 고민이 많다.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함으로써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모두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업의 경우에도 대형로펌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고, 정부기관의 채용에서도 각 지역대학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고민은 졸업종합시험에 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여 3년동안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때로는 장학금

도 받으면서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변호사시험을 볼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변시 합격률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졸업시험에서 걸러내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졸업시험에서 2회, 3회 불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2기부터 5기까지 졸업시험에서 낙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과목별 특별강좌를 개설하여 강좌를 성실히 수강하고 평가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받으면 졸업시험사정에서 과목별로 합격시켜주는 것으로 하여 15명을 졸업시킨 적도 있다.

Q. 신입생이 입학했다.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

A. 법전원에 입학하는 것은 변호사가 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전원 3년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에 그리 긴 기간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법전원에 합격하기까지의 경력보다는 법전원에 입학한 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변호사시험 합격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 할지라도 법전원 입학 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없고, 법학기초지식이 부족한 학생이라도 3년간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3년간의 학과성적 상위권자나 졸업시험성적 상위권자가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는 법전원 재학 중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곧 변호사시험 합격과 직결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법전원의 1학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법학기초이론을 충분히 익혀두지 않으면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입생 여러분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학업에만 매진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창**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법률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로펌'이다.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공익사업 등이 합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것을 가장 큰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만큼 국익에 기여하는 로펌이 또 있을까. 정부법무공단의 김민형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editor. 박소희

정부법무공단 김민형 변호사(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일하죠!”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소송을 비롯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로펌'이다. 나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의 수행은 물론이고, 국가 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연구용역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Q. 법조인의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

A. 고등학생 때에는 판례를 직접 작성하고 선고도 하는 판사의 모습이 멋있게 보여 그저 막연하게 법조인을 꿈꿨다. 경북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법학을 공부하면서부터는 직업 그 자체보다는 '보람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조인', '공익을 추구하는 법조인'이 되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Q. 사법시험 준비도 했다고 들었다.

A. 법학과 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스터디가 있어서 동기, 선배들과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즈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는데, 사실 초반에는 사법시험을 계속 준비하려고 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혼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 보다는 법전원에 입학하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조언을 해주셨고 결국 법전원에 진학하게 됐다. 혼자 공부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고 지칠 때도 많았을 것 같은데, 결국엔 꿈을 이루게 됐으니 부모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Q. 경북대 법전원은 어떤 의미인가?

A. 법학부 4년, 법전원 3년, 총 7년의 시간을 경북대에서 보냈기 때문인지, 나만큼 학교가 소중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경북대 법전원에 진학해서 좋은 교수님들께 지도받을 수 있었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만나 함께 공부한 곳이라 더 없이 소중한 곳이다. 지금의 남편도 학부 시절 만났다(웃음). 법학과가 법조인의 꿈을 꾸게 된 곳이라면, 법전원은 그 꿈을 이룬 곳이다.

Q. 법전원 재학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이론만 공부하던 학부 시절과 다르게, 법전원에서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았다. 특히 동기 2명과 함께 대법원에서 주최하는 가인법정변론 경진대회에 참가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기록을 보면서 서면을 쓰는 경험이 당시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었고, 직접 변론도 할 수 있어 변호사가 된 기분이었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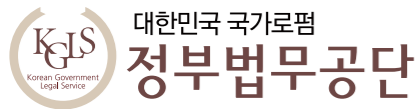
Q. 정부법무공단은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

A. 법전원 졸업 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2년 동안 재판연구원을 했다. 재판연구원을 하는 와중에도 '보람된 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었는데, 마침 정부법무공단의 공고를 보게 됐다. 무엇보다 국가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무의미하게 나가는 세금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Q. 정부법무공단은 어떤 곳인가? 공단에 대해 생소한 분들에게 소개해 달라.

A.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소송을 비롯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로펌'이

승소율 1%가 국고 52억 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수치라고 한다. 나를
비롯해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국고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고 있다.



다. 나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의 수행은 물론이고, 국가 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연구용역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공단의 국가·행정소송 승소율은 민간 로펌의 국가·행정소송 승소율인 63.4%보다 10% 이상 높은 75%에 달한다.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민간로펌처럼 수익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료도 저렴한 편이다. 무엇보다 부정확한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게 되면 그 패소금액은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데, 공단의 승소율이 75%에 달하니 '세금 지킴이'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승소율 1%가 국고 52억 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수치라고 한다. 나를 비롯해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국고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고 있다.

Q. 정부법무공단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린다던데.

A. 사실 나도 공단이 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고 있는지 궁금하다(웃음). 유추해보건대, 공단의 안정성과 수입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 때문이 아닐까? 또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업무가 적을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공단의 업무 자체가 민간 로펌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업무량도 많고 야근도 많은 편이다.

Q. 현재 공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A. 정부법무공단은 굉장히 다양한 사건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고문을 맡기는 기관도 많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일반행정, 사회문화, 국토산업부, 조세팀 등 의뢰기관의 업무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분류된 업무에 따라서 팀이 나뉘지는데, 내 경우에는 1년차 때는 국토산업부팀에 있었고, 현재는 사회문화팀에 있다. 특화된 조세팀 등을 제외하고는, 담당기관에서 위임하는 사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송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특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담당 기관들의 송무, 자문 등 여러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해당 기관의 주된 업무와 관련 법령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해당 기관에 더욱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가 가능해진다.

Q. 공단에 입사한지 2년이 지났다.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

A. 민간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어렵겠다고 판단한 사건을 이겼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공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보람도 있다. 승소를 하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국가 재산 등 정당한 이익을 보호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뿌듯하다.

Q. 공공기관 근무의 일장일단이 있다면?

A. 공공기관이라 근무여건이 안정적이라는 점과 함께 '사내 분위기'를 공단의 장점으로 꼽고 싶다. 민간 로펌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공단의 경우 이윤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화합을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인지 직원들끼리 아끼고 서로서로 돕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좋은 판례가 있으면 변호사 전체가 공유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참고하도록 하고, 변호사들끼리 스터디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뜻한 사내 분위기는 변호사들 개개인의 업무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주고, 실력을 더 빠르게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반면 소개할 만한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다. 굳이 꼽자면, 공공기관이

기 때문에 '업무가 적지 않을까?', '웰빙하지 않을까?' 등의 오해를 한다는 점 정도다.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공단의 업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웃음). 사내에 '10분팀'이라고 있는데, 저녁 6시 10분만 되면 로비에 모여 저녁을 먹고 다시 야근을 시작하는 팀을 일컫는다. 실제로 새벽까지 야근을 하거나 주말 반납도 불사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Q.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A. 단기적으로는 공단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 목표이다. 공단 홈페이지에 주요 승소사례 판례가 게재되는데, 나도 언젠가는 주요한 사건들을 맡아 승소해서 자랑스럽게 실리고 싶다(웃음). 길게 봤을 때에는 사회 각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로스쿨 동기들처럼 나도 내 자리에서, 내가 추구하는 법조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목표다. 공익을 추구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

Q.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만큼의 경험이 쌓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온 길을 누군가에게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다보면, 결국엔 이룰 수 있다는 말은 꼭 해주고 싶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기 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실패는 누구든지 한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고 파이팅하기를 바란다(웃음). **창**

김민형 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부법무공단 입사 꿀팁!

정부법무공단에 입사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정부법무공단은 선발 당시부터 2~3년차를 선발하기 때문에 입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기 보다는 2~3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문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단 내에 '조세팀'이 있으니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런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건 다른 로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행정사건 경험자가 더 유리한가요?

정부법무공단이라고 해서 꼭 행정사건을 경험한 분들만 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3년 동안의 업무수행 경험으로 공단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로클력을 할 당시 행정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고 민사와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만 있었습디만, 제가 수행한 사건들과 경험을 토대로 공단에서 어떻게 업무를 해나갈 것인지 등과 같이 공단 변호사로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로 어필했었거든요.

입사 절차와 공략해야 할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입사 프로세스는 서류 - 면접 - 최종발표의 순으로 다른 로펌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제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공들였던 항목은 '업무계획'이었어요. 공단에 입사해서 변호사로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주요 승소 사례가 나와 있으니, 공단에서 하는 사건이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의 경우는 대대일(면접관 다수)면접으로 약 20분~30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받았던 질문으로는 지원동기와, 자기소개서, 경력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법리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소위 시험에 주로 나오는 판례보다는, 정말 기본적인 법리인데 시험에 나오지 않아 소홀하게 공부하는 부분을 질문하시더라고요. 긴장해서 평소애 달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정확한 답을 원한단기 보다는 상황 대처 능력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 아는 범위 내에서 잘 설명하길 바랍니다.

Hot ISSUE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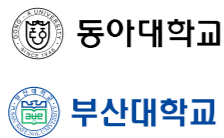
지난 1월 10일(화) 변호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인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됐다. 전국 5곳의 고사장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에는 총 3,110명이 응시해 역대 가장 높은 응시자수를 기록했다. 시험 당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은 시험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법전원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에서도 핫팩, 간식 등을 준비해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합격자 발표는 4월 18일(화)로 예정되어 있다.



사진출처: 로이슈

동아-부산대 법전원 공동 취업박람회 개최

지난 1월 20일(금) 부산 농심호텔에서는 동아대 법전원과 부산대 법전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7년 동아대·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취업박람회'가 개최됐다. 공동 취업박람회는 동아·부산대 법전원 출신 법조인들의 취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우수한 법조 인력을 확보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공동 취업박람회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기관과 학생들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평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법전원생 20명 대상 동계인턴십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2017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동계 인턴십을 지난 1월 3일(화)부터 1월 13일(금)까지 11일간 진행하였다. 이번 동계 인턴십은 법전원생들에게 충실한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 예비 법조인과 소통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약 2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민사, 형사, 신청, 조정재판 실무교육, 민·형사 재판 및 조정기일 방청 및 참관, 지도판사와의 대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진출처: 법률신문



제주대 법전원팀, 법령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2월 9일(목)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는 전국 대학생 및 법전원생을 대상으로 '민음의 법치' 법령경연대회 본선과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당신이 설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 아래 학생들이 직접 만든 법령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자리였다. 본선 대회에서 경연한 11개 팀 중 법령안의 우수성·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4개 팀이 선발됐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표한 제주대 법전원팀으로 돌아갔다. 원광대 법전원팀이 우수상을, 한양대 법전원팀과 서울대 연합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6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이화여대 법전원팀 대상 수상

지난 2월 16일(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에서 진행된 제6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최종보고대회에서 이화여대 법전원 '알바의 정식'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은 공익·인권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전원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대 법전원 '알바의 정식'팀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전예방 및 실천형 노동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해, 청소년 노동법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충북대 법전원의 '인권인더트랩'팀이 수상했으며, '우리들의 누울자리'팀(성균관대 법전원), '풀하우스'팀(이화여대 법전원), '함께맞는 비'팀(성균관대 법전원)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법무부, 2017년 상반기 검사 인사

법무부는 2월 13일(월) 고검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2월 20일(월)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보직에 유임하되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하였으며,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근속 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25명,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28명을 신규 임용하였으며, 작년(2016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신입검사 교육을 마친 로스쿨 출신 검사 47명도 일선 검찰청에 신규 배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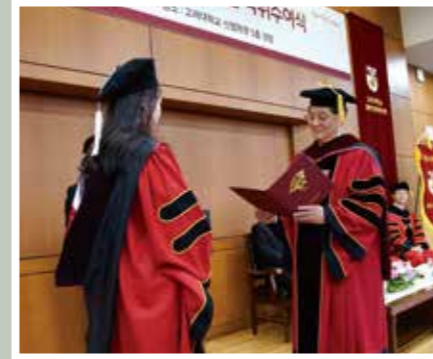
Hot ISSUE

아주대 법전원 학생들. '군대 수은주사' 소송 참여. 승소 이끌어내

아주대학교 법전원 학생들이 '군대 수은 주사'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참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는 군 제대를 석 달 앞둔 2004년 9월 군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후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김씨는 혈중 수은 농도가 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5 미만)를 넘는 120으로 측정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김씨는 군 시절 맞은 독감 주사를 원인으로 봤다. 당시 군 의무대는 수은이 들어있는 체온계와 혈압계를 사용했고 파손 사고가 자주 발생해 수은을 주사기에 따로 모아 뒀으나 관리가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06년 처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보훈지청에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마저 '수은 적출 수술을 받아 더 이상 수은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김씨는 2015년 아주대학교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의 도움을 받아 다시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아주대 법전원 윤우일 교수의 지도로 김택빈, 가혜리, 김서영 학생이 참여했고 양승철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했다. 학생들은 판례 및 기록 검토를 비롯한 재판 준비 과정의 전반에 함께 했다. 결국 김씨는 첫 소송 후 11년 만에 승소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아주대 법전원 김택빈 학생은 "승소 소식을 듣고서 수년 간의 소송에 지칠 대로 지쳐 있던 의뢰인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며 "함께 소송을 준비하며 보고 느낀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학업과 변호사 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출처: 뉴시스 2017-02-17

김재왕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올해의 공익봉사상' 수상

김재왕(39·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1월 19일(목) 서울변호사회에서 주는 '2017년 공익봉사상' 수상자로 뽑혔다. 김 변호사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생물학도 시절 왼쪽 시력마저 잃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4년간 상담원으로 일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전문지식의 필요성을 절감해 법률전문가로서 장애인 인식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2012년 법전원을 졸업한 그는 5명의 동료와 '희망을 만드는 법'을 꾸렸다. 요즘 김 변호사는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에 주목하고 있다.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이 교사임용 시험 면접에서 '의사소통능력 부족'을 이유로 탈락하자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싸워 승소했다. 기사출처: 한겨레 2017-01-19



새로운 시작!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2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2016학년도 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각 법전원의 학위수여식에는 해당 법전원 원장 및 대학 총장을 비롯해, 교수, 학부모, 졸업생 등이 참석해 지난 3년간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하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예비 법조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각 법전원에서는 새로이 법전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학식도 개최됐다.

김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당선



전국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 새 수장으로 김현(61, 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당선됐다. 대한변협은 1월 16일(월) 제49대 변협회장 선거를 치른 결과, 김 변호사가 경쟁자인 장성근(56, 연수원 14기) 변호사를 큰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선거 공약에는 ▲유사지역 통폐합, ▲연 배출변호사 1,000명으로 제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으로 일감 확대, ▲성공보수 합법화 추진 등이 있다.

이찬희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 당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임 회장에 이찬희 변호사(52, 사법연수원 30기)가 당선됐다. 이 신임 회장은 총 투표 8420표 중 4503표를 얻어 경쟁자인 윤성철 변호사(46, 연수원 30기), 황용환 변호사(61, 연수원 26기)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이 변호사는 당선 소감을 통해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화합하고 하나 되는 서울변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선거 공약에는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통한 변호사 업무 특화 교육, ▲6개월 의무연수제도 폐지, ▲변호사 복지 강화 등이 있다.

“공직자 자신들부터 법 지켜야 국민에 법준수 말할수 있죠”

소통 · 화합형 리더...‘한양맨’ 이형규 로스쿨협 이사장



시간 예상했던 인터뷰는 어느새 2시간을 넘겼다. 중간 중간 돌발질문을 던지다 보니 이야기가 계속 확장됐다.

1955년 충남 보령생인 이 이사장은 한양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한양대에서만 공부하고 가르쳐온 ‘한양맨’이다.

주말에도 늘 학교로 출근해 학생들의 논문 첨삭 지도를 한다. 2년 임기 한양대 교무처장을 4년 했는데 교무처장을 연임한 것은 그 외에 단 한명뿐이다.

그의 또 다른 강조점은 “위보다는 아랫사람들을 더 챙기면서 산다”는 것이다. 인터뷰 도중 자연스럽게 일어나 직접 냉장고에서 비타민 음료를 꺼내 나눠준다. ‘수평형 리더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이다. 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불러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즐긴다.

김명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 이사장은 본인 주장은 거의 하지 않고 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을 듣고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라며 “소통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자.”

이형규(6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밝힌 좌우명이다. 무슨 욕심이 있다가 보다 열심히 하다 보니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까지 맡았다고 했다.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등 각종 학회, 위원회 등에서 얻은 다른 직함도 10여개나 된다. 인터뷰 내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제값됐다. 먼저 묻지 않았는데도 인터뷰 이틀 전에 보낸 질의서에 답변을 미리 정리해 놓고, 하나씩 차례차례 설명해 나갔다. 당초 1

형, 화합형 리더”라고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은 후 ‘당신 딸이 로스쿨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이나? 입학비리 아니냐?’며 루머를 근거로 항의하는 문자를 거의 매일 받지만, 패념치 않는다고 한다. 사실이 아닌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다. 한 두번 답변했다가 말꼬리잡는 식의 공격을 받은 이후 자신만의 대처법이라는 것이다. 실제 그의 딸은 법학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일시적으로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두드러진

각종 법조비리가 사실 과거에도 있었던 것인데, 사회가 발전하고 민주화하면서 하나들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사장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바로 “법치주의의 중요함을 다시한번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하려면 공직자 본인들부터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치주의의 ‘법’은 국민의 상식 수준이어야 합니다. 1000만명이 넘게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요구하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 상식 수준의 법이 어떤건지 곰곰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드라마속 ‘조들호’같은 변호사 더 많아져야”

변호사=신분상승 시대 지나 특권의식 버려야 생존...

“임기중 무이자 대여장학금제 실현”의욕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올해 법조인 선발 제도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는다. 1963년 시행된 이래 ‘신분상승의 사다리’로 불렸던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예정된 2차 시험이 ‘마지막 무대’다. 사법시험은 이제 그 자리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내주게 됐다.

로스쿨은 지난 8년간 이어진 사법시험과의 ‘불편한 동거’

를 끝내고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불공정 입학 논란과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에 시달렸던 로스쿨은 그 오명을 씻기 위해 변화를 모색 중이다. 지난해 5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총괄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 선출된 이형규(61)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앞에 섰다.

지난 12월28일 서울 한양대에서 만난 이 이사장은 “이제



다. 장학금을 한 푼도 안 받는 학생은 전체의 5~10%밖에 안돼요. 90% 이상 학생이 적게는 20%에서 100%까지 학비를 면제받습니다. 학교별로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등록금 자체가 전보다 15% 내리기도 했구요.”

이 이사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할 능력이 있는 인재라면 누구나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활용해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림동 고시 준비생 중 약 3%정도만 합격합니다. 장기간의 고시공부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도 사시에 매달리는 ‘고시 낭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학원비, 고시원 생활비 등 사시 공부도 사실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젠 더 이상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조인이 되고 싶으면 로스쿨에 입학해서 교육과정을 마치면 대부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이사장은 이런 맥락에서 현재 55% 수준인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8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시험이 소수의 합격자 규모를 정해놓고 경쟁하는 사시처럼 운용돼선 안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일정점수 이상 획득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특권 의식 버려야” =변호사업계는 관찮을까. 2007년 8000명 수준이던 변호사가 10년 만에 2만명을 넘어서면서 변호사업계는 이미 포화상태라는 진단이 많다. 대한변호사협회 전 사무총장인 황용환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줄여 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기까지 했다.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1인당 수입 건수가 급격히 줄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이사장은 변호사업계의 이런 우려가 곧 해소될 것이

이 이사장은 현재 55% 수준인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8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시험이 소수의 합격자 규모를 정해놓고 경쟁하는 사시처럼 운용돼선 안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일정점수 이상 획득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본다. 로스쿨 시대 변호사는 소수 특권층으로 존재했던 사시 체제의 변호사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권 의식만 버린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변호사가 됐다고 한 번에 신분상승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변호사는 서비스 마인드로 무장한 법률 전문가일 뿐입니다. 변호사가 넘친다고 하는데 지방 로펌을 보세요. 한참 모자랍니다. 앞으로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어떤 곳이건 들어가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송무 업무만 하겠다고 해선 안됩니다. 과거 법대 졸업생이 주로 일했던 기업 법무팀부터 지방의 자그마한 법률사무소 등이 모두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 같은 변호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입학과정 투명성·공정성 논란 없도록 하겠다” =논란이 돼온 로스쿨 입학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시비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이 이사장은 강조했다.

“과거 면접 때 아버지나 가까운 친인척이 사법기관의 주요 직책을 지냈다고 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기소개서에도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지요. 명문대생 위주로 뽑는다고 해서 지금은 심지어 대학명도 가리고 이수과목, 성적 등 다른 기준만 참고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로스쿨이 입학시험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량할 수 있는 ‘정량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인정하는 시험성적 등 객관적인 기준만 놓고 사람을 뽑으니 다양성이 오히려 더 훼손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량평가를 강화하니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출신과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더군요. 예전엔 서류평가에서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대생들이나 지방대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뽑기도 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선발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창**

박일한 기자 / 기사출처: 헤럴드경제 2017-01-06

"걸음마' 로스쿨 통폐합 논의 이르다"

"결원보충제도 반드시 필요...안착위해 관심·성원 부탁"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던 지난 13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만난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62·사진·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통폐합과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주장에 대해 "통폐합은 시기 상조고, 지방 로스쿨은 지역 인재 육성의 일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가 정책을 세우고 국회에서 입법을 했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그간 사법시험 존폐문제로 로스쿨 본연의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사시폐지이슈는 마무리됐지만 '신규 변호사배출 축소'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다. 특히 올 들어 당선된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모두 로스쿨 통폐합과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통한 변호사배출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그러나 졸업생이 5기밖에 배출되지 않은 '걸음마 단계'의 로스쿨에 통폐합을 논하는 것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방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최근 교육부가 시행령 입법예고한 '결원보충제'에 대해선 지방 로스쿨 공동화를 막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한

시법이던 때와 달리 교육부 장관이 장학금·등록금 등을 반영해 승인을 하도록 조건을 강화했고 안정적 로스쿨 운영을 위해 반드시 계속돼야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변호사 업무영역확대와 유사직역통폐합에 대해선 변호사단체와 입장을 같이 했다. "졸업생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비용구조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잉 확보됐던 교수진은 자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정기준을 초과해 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로스쿨들은 신규 채용을 자제해 이미 교수를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장학금과 교수인건비 등을 지금은 학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법연수원 지원 예산을 각 로스쿨에 돌려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 입장에선 운영상 적자구조지만 반대로 경제적 취약층인 학생입장에선 장학금이 풍부해 돈 없어도 다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6000명의 학생 중 전액 지원받는 학생이 지난해 기준 953명(15.8%)이고 경제적 취약층은 기숙사도 무상제공 받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부유층만 다닐 수 있다는 편견이 가장 안타깝다"며 "로스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창**

유동주, 송민경 기자 / 기사출처: 머니투데이 2017-01-31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저 자 : 폴커 키츠
출판사 : 한스미디어
가 격 : 14,800원
판매처 : 교보문고, yes24등 인터넷 서점 및 오프라인 서점

우리는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한지, 불합리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사람은 매우 적은 것이다. 하지만 정의로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그 어떤 인문학보다 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법이야말로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교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어렵고 딱딱하기만 하다. 현학적인 용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장, 방대한 양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한다. 유려한 문체로 안내하는 여정을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것이다.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글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

저 자 :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공저
출판사 : 로고폴리스
가 격 : 18,000원
판매처 : 교보문고, yes24등 인터넷 서점 및 오프라인 서점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헌법만 잘 작동하면 우리는 국민주권·권력분립·법치주의 등이 보장된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가 대변하고 있듯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정신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주권자의 권리는 투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주권자로서의 책임의식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25개 법전원의 학생회장단으로 이루어진 단체다. 지난 11월 제15대 법학협 협의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고, 제주대학교 법전원 전민성 학생이 그 자리를 맡았다. 전국 법전원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전민성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editor. 박소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협의회장, 제주대학교 법전원 8기 전민성 학생

“언제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학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 제 학부 시절은 ‘사법고시’와 ‘봉사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대학기간 대부분 공부를 했고, 일부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봉사활동은 공부로 지쳐있는 저에게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활력소인 동시에 법제도 개선을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법전원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복지시설의 간호사로 근무하신 어머니께서는 근무시간 외에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저 역시 어머니를 따라 장애인 관련 행사에 봉사자로 참여하거나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식사 지원 봉사를 하면서 소외계층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장애인 복지재단에서의 봉사 활동은 다양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방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좁았던 제 시야를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고 서로 치유 받는 과정’이 봉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종종 이들의 신체적·사회적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거나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을 때, 개인적인 도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근간이 되는 법제도의 변화를 통해 ‘함께 이기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을 품고 법전원에 진학했습니다.

Q 공부만 하기에 빠듯한 법전원 생활에서, 명예직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 회장의 자리에 선뜻 도전한 이유가 있나요?

A 법전원 생활 3년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값진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지식과 더불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000명 원우님들의 대표로 내부의견을 조율하고 국가기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제 자신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도전했습니다. 임기동안 다사다난했으나 뛰어난 각 법전원 학생회장님들과 함께 봉사자로서, 대표자로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Q 25개 법전원 회장단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회장단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A 법전원 회장단 모임은 참석률이 높은 편입니다. 학기 내에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와 방학 중 법학협의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경우에도 각 지역에 있는 상당수의 학생회장님들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법전원 회장단으로서 함께 모여 동고동락한 터라 서로의 처지와 고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심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변호사시험법개정안 관련하여 국회에서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열지 않고 계속 법안을 제1소위에 상정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 때문에 전국 25개 법전원 회장단은 기말고사기간 중에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많은 고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학생회장님들의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은 화합과 소통을 통해 협력하는 것을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Q 법학협 회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으며,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지난 1월 25개교 학생회장님들과 함께 제6회 변호사시험장을 찾아, 시험에 응시하는 선배님들께 따뜻한 도시락을 배부했습니다. 제15대 법학협에서는 제14대에서 시작된 법학협 홈페이지를 정돈함과 동시에 법전원 학생들의 권익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대사태 해결 촉구,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주장, 변호사시험 시험장 확대 주장 등을 위해 관련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우리동네 변호사 제도와 연계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공부방 지원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법전원에 대한 외부의 시각이 급지만은 않습니다. 입학 전과 후, ‘법전원 학생’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A 입학 전 사법고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법전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액의 학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진학할 가능성이 높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실력 없는 변호사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법전원 생활을 통해 그 생각들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전원 내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도 있고 형편이 넉넉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도 장학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경제적 부담 하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간 이루어지는 강도 높은 교육으로 다양한 전공자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한다는 점이 법전원 제도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요?

A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변호사법 제1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변호사법 제1조의 문구가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이상향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인은 전문분야에서의 실력과 따뜻한 가슴을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몇 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전문성 있는 한 사람으로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창**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Korea Moot Court Competition)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법정 변론대회이다. 2009년 처음 실시되어 올해 초 8회 경연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률해석 기관에서 실무자의 시선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법전문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회이기도 하다. editor. 박소희

명예를 걸어라!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사진출처: 법률신문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란?

실제와 다른 사건을 현직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원·피고의 대리인 또는 검사,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여 재판을 진행해볼 수 있는 대회이다. 대법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며, 각 학교의 학생들이 모교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도전하는 대회로 꼽힌다. 대회의 이름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호를 따서 지어졌다.

서면심사

- 참가팀은 문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다.
- 대회집행위원회는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을 확정한다.
- 민사팀 36개팀, 형사팀 36개팀 본선 진출(8회의 경우)

본선

- 대진표 추첨을 통해 분야별 6개팀씩 묶어 6조로 나뉘어 진행한다.
- 대진표 추첨을 통해 팀의 지위를 부여 (민사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 형사의 경우 검찰 측 또는 피고인 측)
- 강연 팀은 기간 내에 자신의 지위에 해당하는 화상자료(PPT)를 제출한다.
- 각 조별 1위 팀은 결선에 진출한다.
- 변론은 쟁점의 정리, 주변론, 재변론,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으로 구성한다.

결선

- 본선 경연일 오후에 본선 결과에 따라 결선 진출 팀을 발표한다.
- 대진표에 따라 결선 경연 전에 결선 경연 팀에게 그 지위를 고지하고,
- 본선에서 제출된 상대방 서면을 교부한다. (결선문제는 본선 문제와 동일하나 본선 문제에 일부 설문을 변경하거나 쟁점을 추가할 수 있음.)
- 경연 분야별로 3개의 경연을 진행한다.
- 결선에서는 PPT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구두 변론 중심으로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변론의 적절성 등의 평가 비중을 높인다.
- 각 팀당 약 40분 간의 준비시간을 통해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검토하고 추가 쟁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 변론은 쟁점의 정리, 주변론, 재변론,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으로 구성한다.

제8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수상 명단

구분	수상자	
1위	가인상	[민사부문] 고려대 로스쿨팀(김소정 · 정성용 · 이현승) [형사부문] 중앙대 로스쿨팀(이기성 · 이경은 · 이윤주)
	대한변호사협회장상(민사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형사팀)	[민사부문] 충남대 로스쿨팀(서범진 · 홍용석 · 김형래) [형사부문] 서울대 로스쿨팀(이현선 · 이금선 · 곽예신)
3위	법률신문사장상	[민사부문] 성균관대 로스쿨팀(전창은 · 정석영 · 최준호) [형사부문] 서울시립대 로스쿨팀(김규현 · 심규철 · 정치원)
	단체 부문	자유상: 서울대 로스쿨 평등상: 고려대 로스쿨 정의상: 서강대 로스쿨
개인 최우수상(MVP)		[민사부문] 고려대 로스쿨 정성용 [형사부문] 서울대 로스쿨 이현선

※ 수상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상장 외에 팀 트로피와 팀 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민·형사 부문 각 결선에서 1~3위의 성적을 거둔 팀원 18명과 개인 최우수상(MVP) 2명에게는 로클럭 선발시 서류전형이 면제되고 곧바로 필기시험에 응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다.

가인상 수상팀에게 듣는 뒷이야기!

Q. 수상소감은?

민사팀 발표 당시 저(정성웅)는 소리를 질렀고 현송이는 울었으며 소정이는 얼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표현 방식만 달랐을 뿐이지 팀원 모두 기절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예선 경연을 마친 후 본선 진출을 못할 것 같다는 모종의 합의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형사팀 우선, 굉장히 감사합니다. 로스쿨에 들어오고 나서 즐거운 날도 있었지만, 좌절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한 없이 작아지던 순간에, '수고했다'는 따스한 칭찬 한 마디 같은 상을 받고 다시 남은 1년을 버틸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추운 겨울 함께 밤을 새며 서면을 쓰던 팀원들의 노력이 보상을 받은 것만 같아서, 그런 우리 팀을 보며 응원해주시던 많은 분들에게도 보답하는 기분이 들어서 기쁩니다.

Q. 팀원 구성은 어떻게 했나?

민사팀 로스쿨 내부에서 결성한 스터디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원래 다른 구성원, 소정 그리고 저로 이루어진 팀이었으나 다른 구성원의 동계 실무수습과 대회 일정이 겹쳤습니다. 그가 이탈하는 동시에 현송이가 스카우트되면서 팀이 최종적으로 결성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팀 저희 팀은 7기 2명과 8기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기 2명은 지난 대회에 같이 참가한 인연이 있어 이번에도 같이 참가하게 되었고, 8기 1명과는 형사법 수업을 같이 수강하게 된 인연으로 가인법정변론대회에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 실제로 대회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했나?

민사팀 예선의 경우 약 3~4일 정도 걸린 것 같고, 본선 서면의 경우는 약 6~7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형사팀 예선 서면과 본선 서면 제출기한이 학교 시험 일정과 겹쳐 있어서, 주어진 작성 기한에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려웠습



민사팀 _ 고려대 (김소정, 정성웅, 이현송) / 사진출처: 법률저널

니다. 서면 작성에는 예선, 본선 각 4일 정도의 시간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본선 변론 당사자 지위가 결정된 26일부터는 이미 방학 중이어서 그때부터 대회일까지는 집중해서 변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민사팀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모두 변론해야 하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형사팀 저희가 구성한 답안이 법리적으로 올바른지 그른지 확신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기존 판례의 사실관계와 다른 사안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 법리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경우,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Q. 서면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민사팀 합리적이고 간결한 논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읽자마자 정답을 맞히려는 의욕을 앞세우기보다는, 충분한 브레인스토밍과 회의를 통하여 논의의 틀을 짜보겠다는 태도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형사팀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문제와 일견 비슷해 보이나 엄연히 다른 판례에 문제를 끼워 맞춰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 방법의 경우, 저희 팀은 문제를 크게 3개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분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원과 계속 의견을 교환해나가며 실질적으로는 모든 문제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서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Q. 본선과 결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민사팀 본선 문제가 출제되고 며칠간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결선 문제는 본선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당일 출제되므로 본선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을수록 대처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형사팀 먼저 본선의 경우, 각자 준비한 답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변론하는 것이 법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호소력 또한 갖출 수 있을지에 관하여 팀원들과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시각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대해서도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하였습니다. 이미 서면은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는 완성된 상태이니,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선의 경우, 본선과 동일한 문제로 변론하되, 새로운 사실관계가 추가됩니다. 대회 당일 결선 준비시간이 약 60분 주어져는데(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이 때에는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변론 및 질의응답을 준비하는 동시에 결선에서 새롭게 만난 상대방의 서면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변론을 구성하는 데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짧은 시간이니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쟁점을 모두 판단해주고 상대방 서면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부분을 반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간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Q. 본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민사팀 협동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팀의 협동은 풀기에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문제를 풀게 하였고, 팀원들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었습니다. 앞으로 법률가가



형사팀 _ 중앙대 (이기성, 이정은 이윤주)

되어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팀 저희팀 역시 팀워크와 협업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법학 공부는 홀로 학습해야 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법학과 관련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이를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실제 판사님들 앞에서 직접 변론을 해보는 경험도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큰 자산이었습니다.

Q. 9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민사팀 출제된 문제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거나 애써 마련한 논리가 빈약하다고 느낄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팀들이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고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 대회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서면을 작성해보고 또 실제 판사님들 앞에서 변론해보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새로운 배움의 일환이라는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보다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



송무법인의 고용변호사

법무법인 연
문승현 변호사

변호사 시험을 보는 기간 동안은 시험을 준비했던 3년보다 더 길고, 고단하게 느껴질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쉬는 시간, 복도에서 잠깐씩 마주치는 동기들의 웃는 얼굴과 주고받는 응원이 시험기간을 버티게 해주었다고 말할 정도로 로스쿨을 다니는 동안의 인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만 3년을 채운 햇병아리 변호사로서 감히 이 글을 접하는 분들에게 어설픈 조언을 하거나, 마치 무엇이 정답인 것처럼 말을 풀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은 송무법인의 고용변호사로서 3년 동안 일하면서 겪게 되는 소소한 생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로스쿨 학우 분들도 하나의 참고 사항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주로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사무실이 규모가 커져서 현재는 9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인으로 변화하였지만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변함없습니다. 작은 법인에 소속된 고용변호사로서 보통 40 내지 50건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합니다. 담당하는 사건의 종류는 50%정도가 민사, 30%정도가 형사, 나머지 20%정도가 행정 또는 가사 사건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 수와 분포인 경우,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4~5회 정도 재판에 출석합니다.

먼저 송무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된 이후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체법리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재판절차에 관한 이해를 먼저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체법리에 대하여 고민하고, 새로운 법령과 판례를 계속 접하는 노력이 병행되어

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체법적 쟁점을 다루어야 하는 사건의 종류는 방대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률규정 역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이해도를 높이는 일은 단기간에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그에 반하여 송무변호사가 담당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체득할 수 있고, 이는 사건진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여유가 된다면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기간 중에서도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을 견학할 기회를 많이 가져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송무변호사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서면을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스스로 서면작성 일정을 미리미리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는 심정으로 밤샘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일과시간 중에는 재판출석, 사건상담 등으로 인해서 집중해서 서면작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고용변호사 신분일 경우에는 법인 일정에 따라서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업무가 갑작스럽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로 송무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에게 맡겨지는 자문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다급하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법인이라면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긴급하게 준비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예상치 못한 일정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시간 배분까지 고려해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평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 현실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송무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의뢰인이 계속한다면 사건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스스로 기준선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송무변호사는 사건을 마주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의뢰인들의 요구는 무척이나 다양하고 때때로 그 요구의 내용이 사건에 결코 유리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때로는 의뢰인을 적극 설득하여야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의 오해를 사서 대리인에서 해임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결국 송무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의뢰인이 계속한다면 사건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스스로 기준선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의뢰인이 요구한다면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주장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의 이익에 저해되는 내용에 관한 주장은 의뢰인을 설득해서라도 만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변호사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지위와 자연인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관하여도 고민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변호사로서는 사건을 수입해야 하는 부담감을 크게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부 사용자들은 고용변호사를 장래의 경쟁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존 의뢰인과 고용변호사가 친분이 생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변호사로서 일정기간, 대개는 5년 내지 7년을 근무한 뒤에 파트너변호사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퇴직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파트너변호사가 되기 위한 요건 중 상당한 비중도 사건 수입능력이 될 수밖에 없고, 고용변호사가 아닌 개업변호사가 되

기 위해서도 결국 사건 수입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변호사로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무변호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또는 사건 결과로 인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 등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건에서 패소한 의뢰인들이 예상 이상으로 과도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러니 하게도 승소한 의뢰인들도 “변호사가 재판에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애초에 이길 사건을 이긴 것이다” 라면서 태도를 돌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반드시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취미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변호사회 일정에 따라서 여행을 가기도 하는 등 변호사들이 쉽게 참여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장이 어려워졌다고 다들 말하고, 실제로 많은 초년 변호사들이 예전에 비해 업무의 내용이나 대우에서 비교적 열악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호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지위에 놓여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로스쿨 재학시절보다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더 좋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

문승현 변호사

“학부에서 법학과는 거리가 먼 원자핵공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주 소재 법무법인에서 즐거운 사람들과 3년째 송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가가 될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하루 하루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로스쿨 후배들을 위한 작은 조언

머니투데이 사회부 법조/더엘팀
송민경 기자(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3기 송민경 변호사입니다. 처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공부라는 것은 정말 힘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은 겪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먼저 이 길을 걸었다는 이유로 부족한 제 경험을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공부법에 대한 조언

저는 영문과 전공으로 법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채 입학했습니다. 주위로부터 로스쿨에 대한 추천을 받아 막연하게 진학한 터라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를 실천한 결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첫째는 ‘두문자 만들기’입니다. 법학 과목은 암기가 필수입니다. 두문자는 말도 안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서 웃음이 날 정도가 돼야 잘 기억이 납니다. 두문자를 매우 좋아해서 모든 과목에 다 활용했습니다. 두문자로 목차를 외우기도 하고, 판례의 중요 문구를 외우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형법 과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표로 정리 → 그 표를 두문자로 외우기’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둘째는 ‘오답노트 만들기’입니다. 저는 객관식 문제집을 많이 풀었습니다. 객관식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라면 사례나 기록으로 나와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틀린 문제는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고 한 번 더 읽은 후 모르는 것은 기본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한 번 쭉 본 후 다시 틀린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 판례 원문을 찾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 검토할 때 다음에도 생각이 나지 않겠다 싶은 것이나 암기해야 할 것은 포스트잇에 적어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과목마다 따로 공책을 만들어 그 포스트잇을 차곡차곡 붙여 나갔습니다. 그 후 문제집은 바로 버렸습니다. 하나하나 집착하다보면 시간이 없고 쌓이면 짐이 되기 때문이죠. 오답노트에 붙여둔 포스트잇을 여기저기로 이동시키거나 그것을 토대로 두문자를 만들며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 오답노트를 시험 직전 훑어보며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단시간에 빠르게 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작업이니 한 번 해보세요.

로스쿨 생활에 관한 조언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정말 시험 볼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 두려웠죠. 항상 꾸준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실천이 어렵기도 하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생활 중 방학 때마다 했던 실무수습이 기억에 납니다.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실무수습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법제처, 서울시, 저작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여러 곳에 실무수습을 했는데요. 특히 저작권위원회에서 오픈소스, 디지털 포렌식 등 생소한 분야에 대하여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소중한 인연들과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행정심판에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도 할 수 있다면 꼭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새는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관련 대회도 열리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정말 시험 볼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 두려웠죠. 항상 꾸준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실천이 어렵기도 하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는 것으로 압니다. 법에 대한 공부 좀 돼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대회에 참가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입니다. 모의 변론을 해보거나 논문을 써보거나 하는 소소한 즐거움과 성취감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일상생활에 관한 조언

첫째는 ‘공부가 잘 되는 시간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가 밤에 잘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듣고 저녁을 먹은 후부터 밤을 새서 다음날 아침에 자고 다시 일어나서 수업을 듣는 스케줄을 짰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충분히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시간에 미리 맞춰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를 선택해 하면 될 것입니다. 일부러 시간대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운동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부터 느끼고 있겠지만 공부도 체력 싸움입니다. 저도 변호사 시험 일주일 전에 아파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있느라 마지막 정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맺으며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다 합치면 13시간도 넘는 ‘반지의 제왕’ 3부작 시리즈는 원작인 책을 영화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죠. 최근에 영화관에서 재개봉했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절대반지는 모두들 갖고 싶어 하는 존재로 묘사되는데요. 이것을 가지면 권력을 손에 쥌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절대반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

다.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나까요. 물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진 사람에게 꼭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 프로도가 절대반지를 파괴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데, 고생해서 결국 원하는 것을 해냈지만 거기에서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The life goes on’이라는 말도 있듯 삶은 계속되지요. 이 프로도의 모습과 변호사 시험을 보고 난 학생들의 모습이 겹쳐보였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 거니까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실무수습을 거쳐야 하고 그 후 취업을 해야 하지요. 물론 취업, 쉽지 않습니다. 점점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취업 후 일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하는 동료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직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의지일 것입니다. 프로도가 절대반지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현재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말이죠. 로스쿨 생활 3년 후회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셔서 원하는 것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

송민경 변호사

“명덕외고에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 이화여대 영문과에 진학했습니다. 법에 대한 관심이 뒤늦게 생겨 소위 ‘뽕비법’으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잠시 사내변호사로 일하다 지금은 일반 독자들에게 법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는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관한 작은 이야기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이 최우선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차재묵



시험 당일 컨디션과 멘탈이 좋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평소 체력 관리에 신경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단단한 정신을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출문제를 진도별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하는데 쟁점별 출제 빈도수를 쉽게 알 수 있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해당 과목 1회독을 병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어느 부분 공부가 덜 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미리미리 그 부분을 보강해둘 수도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목차 및 들어갈 내용만이라도 간략히 적어보길 권한다.

다. 빠르게 훑을 수 있는 자료 준비하기

시험에 있어서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직전에 본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 아무리 꼼꼼하게 공부해 둔 내용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막상 시험에 임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어렵다. 평소 보던 책에 밑줄을 쳐놓거나 미리 정리 자료를 준비해 놓으면, 시험 직전에 이때까지 공부한 것들을 빠르게 리마인드 할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아예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객관식 문제는 틀린 걸 또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틀리거나 헷갈렸던 선지들을 모아서 정리해 두고 시험 직전에 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라. 최신판례, 조문의 중요성

이번 변호사시험에서도 작년과 같이 최신판례가 많이 출제되었다. 시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출제되는 만큼 판례의 결론 및 그 논거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문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객관식 문제에 도움이 됨은 물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사례형, 기록형 문제 풀이 시 조문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마. 기록형 시험에 관하여

이번 변호사시험 민사 기록형의 경우 주주대표소송이 출제되었다. 작년에도 어음금청구가 출제된 만큼 앞으로 민사 기록형에서 상법 쟁점이 꾸준히 출제될 것이라 예상된다. 상법 공부를 하면서도 소송 관련 쟁점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숙지해 놓으면 좋겠다. 또한 재판실무 과목은 모두 수강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기록형 문제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변호사시험과 형식은 다르지만 기록을 보고 쟁점과 결론을 추출해 내는 과정을 동일하기 때문이다.

3. 시험 당일 이야기

가. 간식 및 비상약 준비

점심시간 이후 장시간 시험을 치다보면 배가 고프고, 당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여러 가지 간식을 챙겨갔다. 특히 포도당 캔디는 먹을 때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당이 바로 뇌로 공급되는 느낌을 받아 꽤 도움이 되었다. 또한 시험 당일에는 긴장이 많이 되어 평소 건강하던 사람들도 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 필자는 소화가 잘 안되어 점심 식사 후 체기를 느끼기도 했으나 다행히 소화제를 챙겨가 남은 시험을 별 탈 없이 치를 수 있었다. 소화제, 지사제, 두통약 등 갑작스런 몸의 이상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약을 챙겨 가면 꽤나 든든하다.

나. 객관식 시험

사소한 실수를 예방하여 소중한 점수를 지켜야 한다. 특히 '모두 고르시오'

문제의 경우 옳은/틀린을 잘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필자는 문제의 '옳은' 부분은 동그라미를, '틀린' 부분은 세모를 쳐놓고 문제를 풀었는데 꽤나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마킹은 미리미리 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이번 한양대 고사장에서는 민사법 객관식 시험이 1분 정도 빨리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상당수의 응시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예상치 못한 사태를 대비하여 일단 마킹을 다 해놓은 후 헛갈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4. 마치며

변호사시험은 짧은 시간 내에 쟁점을 빠르게 찾아내고 아는 내용을 집약적으로 지면에 쏟아내는 시험이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시험 당일 컨디션과 멘탈이 좋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평소 체력 관리에 신경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단단한 정신을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힘들고 지칠 때도 많겠지만 그 또한 결국 지나가는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하자. 화이팅이다! **창**

변호사시험을 마치면서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 것!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이중석



변호사시험은 5일 동안 보는 시험이고 하루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이중석입니다. 2017년 1월에 6회 변호사 시험을 마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변호사 시험 후기 작성 부탁을 받고 고민하다가 제가 시험을 치르며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 후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나기전이라 조심스럽기도 하고 각자 공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기라기보다는 제가 로스쿨 3학년 1년 동안 했던 공부방법과 모의고사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 3학년 1학기

로스쿨 3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 2월에 변호사시험과 같은 일정의 첫 졸업시험을 치르고 나의 부족한 점을 파악한 뒤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하루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다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얇은 요약서를 과목별, 그리고 시험 형태별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본 3법(헌법, 민법, 형법)의 경우에는 계속 기본서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형과 기록형은 표준 점수로 변환을 하고 선택형은 원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선택형을 비중 있게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사례형과 기록형은 상위 15%가 100점 중 60점, 하위 15%가 100점 중 40점을 획득하고 거의 대부분이 50점 부근에 분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선택형은 3월부터 아침 8시에 학우들과 모여 1시간 동

안 스터디를하기로 했습니다. 이 스터디를 통해 1학기 동안 선택형 기출문제집 전부를 한 번 이상 풀 수 있었습니다. 사례형의 경우는 혼자 야간에 기출 사례문제를 실제 시험시간보다 짧은 50분을 잡고 하루에 기출 1문제씩 풀어보고 기출문제집에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록형은 정규 수업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우리 학교 필수과목인 민사실무와 형사실무 수업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실제 시험처럼 써보며 정리를 했습니다. 공법 기록의 경우는 2학기에 수업이 예정돼 있어서 2학기에 정리하기로 했고 공법 기록형은 사례형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 사례형을 준비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기록형도 대비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1학기를 보내고 6월에 첫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2월의 첫 졸업시험과 비교해보면 선택형 시험의 경우엔 스터디 덕분인지 다 풀어도 시간이 남게 되었고 사례형과 기록형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2월에 비해 여러 판례와 쟁점을 알게 되었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답안에 표현하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문과 판례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적는 연습을 하고 사례와 기록의 쟁점파악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연습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3. 여름 방학과 8월 모의고사

1학기에 조금 무리(?)한 탓인지 여름이 너무나도 더운 지역 탓인지 7월에 공부가 잘 되지 않았습



니다. 그리고 6월 졸업시험 결과가 운이 좋게도 잘 나와 6월 졸업시험에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조금 풀린 채로 8월 졸업시험을 치렀습니다. 선택형은 크게 다르지 않는 성적이 나왔으나 사례형과 기록형은 문제 개수가 많은 것도 있었으나 역시 아는 문제는 길게 쓰고 모르는 것은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간도 턱 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0월 모의고사는 실천처럼 제대로 쳐 보기로 하고 여름방학동안 시간안배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정리한 책들을 1회독하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과목들의 책을 방학동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4. 3학년 2학기, 10월 모의고사

그 동안 정리한 책들을 계속해서 빨리 보고 아직 정리가 안 된 과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시중에 있는 요약서를 구입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오래보는 것보다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것이 기억에 오래남아 회독수를 늘리기로 하고 문제 푸는 시간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회독수를 늘려갔습니다.

오전에는 선택형 문제집을 풀고 틀린 문제는 체크해두고 변호사시험 직전에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친한 동기들과 함께 사례형 3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쟁점을 파악하고 목차만 간단히 적는 식으로 약 1시간 정도의 스터디를 매일 했습니다. 기록형의 경우엔 수요일엔 형사기록 작성, 일요일에 민사기록 작성 스터디를 별도로 했습니다. 공법기록은 수업시간에 일주일에 한번씩 작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스터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학교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특강을 개설해 주었고 이를 통해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특강에서 나눠 준 교재가 너무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시험 직전까지 본 과목도 있었습니다.

10월 모의고사에서는 여러 스터디덕분인지 문제의 쟁점파악을 빠른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었으며 시간 내에 나눠 준 답안지를 대부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고득점의 욕심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간단하게라도 모두 풀자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고 시험을 치른 결과 비워둔 문제없이 모든 문제의 답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답을 적거나 제대로 적지 못한 것도 있었으나 시험 점수는 6, 8월 모의고사에 비해 월등히 잘 나왔습니다. 따라서 고득점을 노리거나 아는 문제를 너무 잘 쓰려는 노력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골고루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이 점수획득에는 유리한 것 같았습니다.

12월에 최신 판례집을 공동구매하여 12월부터는 최신 3개년 판례 위주로 공부를 했고, 선택과목도 실제시험처럼 여러 번 써보았습니다.

5. 변호사시험

대전 시험장에 변호사시험 신청을 하고 시험 시작일 4일전에 충남대 기숙사에 입실을 했습니다. 약 10일가량 시험장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책을 가져갔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생길 수 있고, 시험장에서 책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차로 동기 한명과 함께 많은 책을 트렁크에 싣고 시험장으로 이동하고 첫 날에 짐과 책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처음 예상과 달리 충남대 기숙사가 매우 따뜻했고 오히려 더워서 공부 잘 되지 않는다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숙사 바로 밑에 식당이 있어 시험 기간 내에 생활하는 것은 크게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의 경우 책상과 의자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시험 기간 내내 허리가 아팠습니다. 따라서 방석이나 등받이 쿠션 등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1월 10일 공법 선택형 시험이 시작되었고 처음 몇 문제는 너무 빨리 문제가 잘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긴장이 될수록 10문제 정도는 틀려도 된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편하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의 경우도 10월 모의고사처럼 욕심내기보다는 간단하게 주어진 문제만 다 풀자는 생각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내면 마지막 한 문제 정도를 못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치면서 점점 긴장이 풀리고 마치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와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고 쟁점을 제대로 잡지 못한 문제도 많았으나 답안은 모두 채웠고 문제 전부를 다 풀 수 있었습니다.

형사법 및 민사법도 객관식의 경우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편하게 보자, 틀려도 된다'는 주문을 외면서 시험에 임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도 공법과 마찬가지로 다 풀자는 생각으로 시간안배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략하게 조문과 판례위주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학설도 다 적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답안지의 양과 주어진 시간이 모자라 학설은 이름만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타 학교에서 특강을 오신 교수님께서 답안지를 비워두거나 어느 문제에 대해 백지답안을 내면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말씀이 기억나 전체적으로 문제 점수에 맞게 답안 양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그 교수님께서 어느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모르는 문제를 비워두는 것보다 간략하게라



도 두 문제를 모두 쓰는 것이 결국 획득하는 점수가 높다고 하셔서 처음 답안지를 받으면 문제 점수에 맞게 답안의 줄 수를 체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과감하게 다른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선택형밖에 채점을 못했지만 선택형의 경우는 목표보다는 적으나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은 아직 점수를 몰라서 제 방식이 옳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시험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안배와 답의 분량을 알맞게 정하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은 5일 동안 (휴식일 포함) 보는 시험이고 하루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모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됩니다. 저의 경우엔 가끔 주말을 이용하여 야구 정도의 운동만 했기에 시험기간 내내 체력적으로 매

시험 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선택과목입니다. 준비기간도 가장 짧았고 단시간에 정리를 하다 보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던 것이 선택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목을 2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해 보입니다. 선택과목이 160점이나 되기 때문에 겨우 면과락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잘 준비해 놓으면 전략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기간에도 헬스나 수영, 조깅 등으로 체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전체 1660점을 보는 시험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과목별 한 두문제의 실수로 인해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도중 실수를 했다고 해서, 답을 틀렸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준비해야하는 양이 워낙에 많은 시험이라 시험 준비 기간에도 시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양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보다 과목별로 중요한 쟁점위주로 정리를 한 다음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 적어도 3회독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불안감에 시달리고 보지 않은 책들이 여러 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느 교재에도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떨어지는 합격률이지만 저는 아직도 50%는 합격시켜주는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긍정적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시험 중간

식사 후에는 동기들과 산책도 하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며 불합격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시험에는 매회 시험과 마찬가지로 최신 3개년의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최신판례는 꼭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형위주로 준비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조문과 판례를 많이 숙지하게 되었고 결국 그 판례가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요판례는 과목별로 꼭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시험 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선택과목입니다. 준비기간도 가장 짧았고 단시간에 정리를 하다 보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던 것이 선택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목을 2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해 보입니다. 선택과목이 160점이나 되기 때문에 겨우 면과락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잘 준비해 놓으면 전략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회 변호사시험은 1660점 중 860~870점이 합격선이었습니다. 저처럼 고득점이 아닌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준비 시부터 욕심을 버리고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정한 다음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험당 일에도 답안의 80%정도만 쓴다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답을 썼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시간안배와 답안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 나오며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공부 방법이었고 제가 1년 동안 했던 것들과 시험장에서의 느낀 점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

윤리학에서 법학으로 서양 철학 석사 수료생이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허다운



윤리학적 언어로는 응답할 수 없었던 것들도 법적인 수단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핵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시민은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불법에 투쟁하는 적극적인 법 감정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들을 거듭하고 나서야 법과 사회는 진일보할 수 있다. 한편, 투쟁은 사회의 분열과 순응 사이에 놓여 있다. 투쟁이 격화일로에 빠져서 사회 전체를 붕괴시켜서도 안 되며, 반대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비판 정신을 잃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각 시민 개개인의 ‘윤리 의식’일 것이다.

사람들의 윤리는 그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저항 정신을 반영한다. 즉, 시민들은 소위 ‘헬조선’이라 일컬어지는 인간 소외, 인간의 수단화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한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윤리정신이 모여서 그 시대를 상징하는 시대정신을 구성한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반영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 사람이 살만한 사회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나는 우리 시대의 정신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론화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사회의 문제 저변에 놓인 핵심을 발견해서 언어로 표현하여 사람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기고자 나는 대학교에서 철학을, 대학원에서 서양철학(윤리)을 공부하였다.

6년을 철학 책에 씨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했다고들 하는데, 어떠한 시대적 조류가 시작

되는 것과 이것을 포착하여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풀어내는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가령 시장에서 큰 싸움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다치고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철학도로서의 나는 높은 건물에서 아수라장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숙고한 나머지 최소 십년은 지나야 이미 끝난 싸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싸움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사회의 문제를 헤쳐 나가고 싶었다.

이를 깨달은 계기는 작년(2015년) 6월로, 내가 한창 대학원 석사 종합 시험을 위해서 플라톤의 『국가』와 고군분투 하고 있었을 적에 일어났다. 내가 열심히 윤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가족들이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나를 제외한 부모님과 동생이 크게 다쳐서 가족적 위기를 겪었다. 아직 사고의 상대방은 찾지 못했고 지금도 가족들은 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거국적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가(擧家)적 사태에 놓인 나는 이윽고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 경찰서를 오고 가면서 윤리적 언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윤리학을 전공하고 있으나 어떠한 범죄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내가 배웠던 언어가 윤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한계에 부딪치는 상황을 겪은 것이다. 또한 사건에 대해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집안의 고통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러한 피해자들의 문제의식에 나름대로 응답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결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를 알아본 끝에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윤리학에서의 문제 제기는 학술적 차원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학은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 인간의 생사에 관련된 문제에 관련된 정도로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나는 법학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싶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회복적 사법을 현장에서 실천하여 그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었다. 윤리학적 언어로는 응답할 수 없었던 것들도 법적인 수단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핵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윤리학에서 법학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이며 나 나름대로 시대정신에 응답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학에서 법학으로 가는 여정이 월경(越境)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두 과목을 한 곳에 어우르는 통섭(統攝)하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사회의 기저에 놓여진, 지금까지 마땅하다고 믿어왔던 가치 체계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이상적인 사회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윤리적 통찰이 배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삶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학적 언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초여름에 느닷없이 법학 적성 시험과 외국어 시험을 준비해야 했으니 많은 고충이 따랐다. 게다가 나는 집안 문제도 함께 도와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석사생의 신분이었으니 식비를 최대한 줄여서 문제집 값을 대어야 할 정도였고, 삼시 세끼 대부분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바람에 건강을 상해서 크게 앓았다.

그러나 집안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나의 삶의 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선택했기 때문에 고된 수험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 나의 선택, 그리고 불과 8주에 한정된 수험 생활에 불안이 스며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합격하는 원동력이었다.

로스쿨에 합격한 이후 인문학을 전공했던 학생이 법학을 공부하는 것에 걱정을 표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현상을 초월한, 형이상학적 진리를 추구하다가 갑자기 실제적인 법학을 접하면 적응이 힘들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윤리학과 법학은 좋은 사회와 삶을 꾸려나가겠다는 각오에서 나온 줄기이며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선택한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끈하게 능력을 갈고 닦는다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고자 한다. [▶](#)

춘곤증



조비룡 교수
서울의대 국민지식센터
가정의학과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고역이다. 천근만근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특히, 식사만 하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빈 듯한 느낌이다. 춘곤증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봄이 되면 풀빛이 파래지고, 만물은 소생한다는데, 자신은 소생은커녕 더욱더 고사되는 느낌을 가진다고 호소한다. ‘피로’는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10대 증상 중의 하나인데, 봄이 되면 더욱 늘어난다. 다행히 이러한 춘곤증의 대부분 원인들은 따뜻해지는 온도의 변화, 업무 환경의 변화, 과로 등 일시적인 변화와 문제들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심각한 질환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춘곤증을 포함해서 피로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개인의 생활습관이다. 불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자주 먹는 인스턴트 식품, 반복되는 회식과 폭식, 과로와 충분치 못한 휴식,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원인은 가장 흔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깨끗하지 못한 연료를 사용하고 비포장도로를 마구 달린 자동차는 빨리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선하지 못한 음식에 불규칙적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의 몸은 빨리 망가지게 되어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는 심해진다. 우리 인체는 심한 독감을 앓은 후에도 아무 후유증 없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뛰어난 회복력을 가진 반면, 물을 조금 적게 마셨다는 이유로 피로가 유발되기도 하는 섬세한 기관인 것이다. 봄이 되면서 잦아지는 야외 활동과 집회, 이로 인한 과음, 불규칙적인 수면은 춘곤증을 유발시키기에 너무도 적절한 조합들이다.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과 같은 정신적인 이유이다. 봄이 되면 학년도 바뀌고, 학교 및 직장에서도 새로운

인물들을 맞이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고,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피곤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에서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춘곤증이 많은데, 이때는 적절한 휴식보다도 오히려 적극적인 육체적 활동과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 물론 명상이나 복식호흡, 일기 쓰기 등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신체적 질환들이 피로의 원인일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의 질병은 피로를 유발한다. 감기, 간염, 독감 등은 피로를 유발하기로 소문난 질병들이다. 하지만, 이런 질병들은 피로보다는 다른 증상들이 더 심하고 급성으로 지나가므로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피로가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심각한 질환들은 갑상선 질환, 당뇨, 빈혈, 심장 질환, 우울증, 자가면역성 질환, 암 등인데, 이때는 자꾸 심해지는 피로가 수주일 이상 계속 지속되며, 쉬어도 좋아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몸무게가 급격히 빠진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는 등의 각 질환에 특징적인 증상도 동반된다. 그 외 특이한 음식이나 약물도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최근 복용을 시작한 것이 있다면 피로의 원인으로 한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하는 하나의 질문은 자신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는 생각이 들 때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의 충분한 휴식만으로 피로가 없어짐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잠을 늘이고 휴식을 즐기라는 것은 아니다. 일과 함께 휴식이나 수면에도 규칙성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상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피로를 호소하는데 ‘운동’을 하라고 하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평소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약간의 운동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10분에서 30분 사이의 팔을 힘차게 흔들며 빨리 걷기를 하루에 2-3번 시행하는 정도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노폐물을 연소시켜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식사로는 신선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일정량을 먹으라는 것이다. 다이어트 한답시고 불규칙적으로 행한 때우기 식의 식사 습관은 최근 들어 많이 보게 되는 피로의 주요한 원인이다.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병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앞에서 열거한 질병도 없으면서 자신의 직장이나 학업, 취미 생활을 못할 정도의 피로가 쉬거나 수면으로도 전혀 호전되지 않으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보다도 더 희귀하여 피로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 100명중에서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릇파릇 변하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여 피로를 더욱더 느끼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정비해보고 최근 심해진 스트레스들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최근 무리를 좀 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할 때는 일의 중요도를 잘 평가하여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아예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중요한 일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버릇을 들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일의 밝은 면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음이 힘들 때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보는 것도 훌륭한 대책이다. 어차피 처리해야 할 과중한 업무라면 즐겁게 무리를 하고, 그 과로의 대가를 즐기겠다는 정신적 여유를 갖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다. 물론, 이런 여러 노력들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계속될 때는 의사를 찾아야 한다. 치료해야 할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몸무게가 급격히 빠지거나, 열, 숨참 등이 동반되고, 피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질 때는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참**

저자 소개

- 서울의대 졸업 ● 전공 : 건강증진, 건강노화
- 현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국민건강지식센터 장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의사

비딱한 실험정신, 현대미술의 출발

파르미자니노
「목이 긴 성모」



유명하지만 왜 유명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파르미자니노(Parmigianino, 1503-1540)의 「목이 긴 성모」도 그 중 하나입니다. 파르미자니노는 본명이 지롤라모 프란체스코 마리아 마촐라(Girolamo Francesco Maria Mazzola)로, 코레조와 더불어 르네상스 파르마 화파를 이룬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태어났고, 「파르미자니노」는 파르마에서 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파르미자니노는 16세기 비 베네치아 출신 중 가장 잘 알려진 초상화가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미켈란젤로 등이 활동했던 르네상스 시기이지요.

오늘의 작품인 「목이 긴 성모」(긴 목의 마돈나라고도 하지요)를 볼까요? 이 작품은 쉽게 봐서는 고전주의 작품이자, 종교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작품이 무대위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서있다가, 시를 읊는다든가, 기성물건을 던져놓는다든가, 거친 붓터치만 있다든가, 형상이 없고 색만 있는 등 특이하고 요상하고 소위 난해한 '현대미술'이라는 걸까요?

이 작품은 성모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산타마리아 교회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고 파르미자니노가 가장 절정의 기교를 보여줄 때 그려졌으며 스테카타 벽화와 같은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목이 긴 성모」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그림은 기이할 정도로 목이 길고, 배꼽부터 하복부가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가락도 무척 길지요. 전반적으로 인체 뱃생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린 것처럼 기이합니다. 파르미자니노가 표현한 「목이 긴 성모」는 인체비율이 10:1입니다. 10등신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파르미자니노는 그림을 못 그리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기교가 아주 뛰어난 화가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 작품은 잘 그릴 수 있는데 '일부러' 못 그림으로써 유명해 진 것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파르미자니노의 다른 그림인 「안테아라고 불리던 젊은 여인의 초상」을 보면 그의 실력을 알 수 있지요.

사실 이 작품은 오늘날 현대미술과 그 근원에 대해 이해하고, 서양철학과 인문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이 긴 성모」는 젊은 화가의 삐딱한 실험정신이 투영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러한 삐딱함과 실험정신이 파르미자니노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르네상스 화가들의 반작용에서 출발합니다. 그 시대 르네상스 거장들의 회화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젊은 화가들



파르미자니노, 「안테아라고 불리던 젊은 여인의 초상」

저자소개



김별다비
경감, 변호사, 큐레이터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롯데백화점 미술관 큐레이터, 아르코 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엘지전자 개인정보 compliance task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로 3년여 근무하다 예술인의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에 뜻을 두고 2기 경감 특채로 선발됐다. 3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 변론부문 전국우승을 한 바 있다. 대안공간 정다방, 리카 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술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월간 BizArt지와 한국박물관협회지에 미술법 칼럼을 쓰고 있다.

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고, 자신들은 하나의 부품에 불과하며 미술사에 이름을 올릴 수도 없었지요. 결국 선배들의 아류에 불과할 테니까요. 존재의 이유를 잃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등감, 열패감, 패배감 등이 혼재했을 겁니다. 사실 '매너리즘'은 선배들을 베끼기만 한다는 자조에서 출발한 '인위적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파르미자니노는 왜 잘 그리던 자신의 능력을 버리고 일부러 못 그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선배 르네상스 시대의 '잘' 묘사한 그림들로부터 탈피하여 후대 작가들이 선배들의 기교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 이유는 역시 인본주의적 사고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른 개성의 존재이므로 서로 달라야지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달라야 타자와 내가 구별되겠지요? 그런데 선배의 기교를 그대로 답습하면 '나'를 특징짓는 '개성'은 없고, 누가 그랬든 상관없는 시대의 한 '무명 화가'가 되어 버릴 테지요.

그래서 파르미자니노 역시 독자적으로 '나는 남들과 다름으로써 생기고,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본주의적 철학이 서양미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테제이고, 지금까지도 '타인과의 구별짓기'는 현대미술의 중대한 명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타자와의 구별짓기인 최초의 '현대미술'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인문학이란 인간에 관련한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중 서양철학은 세계와 인간, 사물과 현상의 가치와 궁극적인 뜻을 향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발현된 것은 르네상스 시기이지요. 인문주의 또는 인본주의라는 르네상스 사상은 인간의 존재를 특히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신과 인간성의 역제가 중요시되던 종교적 중세에서 모든 사과와 삶의 중심을 인간으로 옮겨오는 것이지요. 바로 이 때 예술 분야에서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화풍, 즉 사실적 화풍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 등등의 거장들의 놀라운 그림들이 탄생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파르미자니노는 이미 선배 화가들이 완벽하게 문화를 완성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파르미자니노도 열심히 선배들의 기교를 연습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일률적으로 답습되던 선배 화가들의 전통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파르미자니노는 무언가 새롭고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기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파르미자니노 당대의 이러한 파격적 시도 중 하나는 마니에리스모 즉 '매너리즘' 기법입니다. 매너리즘이란 기교주



파르미자니노, 「볼록 거울 속의 자화상」

의, 인위주의, 작위적인이란 뜻이 있는데, 그 어원이 된 mano는 손이란 의미입니다. 미술사에서 매너리즘이란 보통 르네상스 후기 사실적 재현의 전통에 반기를 들고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매너 또는 스타일)에 따라 예술작품을 구현한 예술사조를 부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유치할 수는 있지만 파르미자니노가 생각한 방법은 인체를 길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가늘고 우아한 형태와 뛰어난 기교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전성기 르네상스의 고유한 자연주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라파엘로 후기 양식을 극도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모호한 공간적 구조와 길게 변형시킨 인물, 그리고 자연미를 초월하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미술사가 바사리는 이를 '세련미'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사리는 1550년 미술가 열전을 출판하면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브라만테, 라파엘로를 훌륭하게 친퀘첸토(16세기) 3단계 양식을 표현한 사람들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양식은 트레첸토(14세기) 시기로 지오토가 있고, 두 번째 양식은 콰트로첸토(15세기)를 말하며, 바로 이 4대 거장들이 16세기 즉 3단계 완성적 양식의 위대한

마침표인것이지요. 이로써 사실 바사리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은 완벽에 다다르고 맙니다.

예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16세기 친퀘첸토 양식이 완벽한 예술이라 한다면, 아마도 예술의 목적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일 겁니다. 자연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술가들이 이 4대 거장을 뛰어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 이 4대 거장 외의 모든 예술가들은 영원히 완벽할 수 없고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르미자니노와 같은 후대 예술가들은 마지막 거장 라파엘로가 죽은 1520년도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간혹 그 새로운 시도는 너무 지나치기도 하고, 자연주의, 사실주의 묘사에 익숙한 고대 사람들 또는 현재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고 과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장된 기법이 인위적이다 하여 '인위적임'이란 뜻으로도 매너리즘은 통용됩니다.

파르미자니노는 어쩌다가 이러한 길쭉한 표현방식을 택한 걸까요? 파르미자니노가 이러한 방법을 착안해 낸 것은 파르미자니노의 '자화상'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날 파르미자니노는 이발소에 갔다가 둥그런 볼록거울을 봅니다. 그 왜곡된 인체가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지요. 한번 왜곡된 이 모습을 그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면에 볼록거울을 그리는 것보다 더 극대화 하려면 처음부터 볼록한 화면에 그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 볼록거울을 볼록한 나무 공을 반으로 자른 반구 형태에다가 그림니다. 청년 파르미자니노의 '삐딱함-실험정신'의 출발이었죠.

이 자화상은 로마 교황의 극찬을 받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기법의 창시자가 스무살도 안 되는 젊은 청년이라는 것도 입소문을 탔습니다. 교황은 이 그림을 보고 천상의 모습을 떠올리고 교황청 벽화를 그리라고도 하지요. 이에 고무된 파르미자니노는 자신의 그림양식으로 정립합니다.

파르미자니노 외에도 이러한 삐딱한 후대 예술가들은 엘그레코, 틴토레토나 브론치노 등이 있습니다. 틴토레토는 불안정한 구도를 사용해 극적인 효과를 노렸고, 브론치노는 원근법이 없는 화면을 사용했으며, 엘그레코

는 자연색이 아닌 오묘한 색과 모호한 윤곽을 사용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냈습니다. 이들 모두 자연스러운 완벽함이 아닌 '부자연스러움'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착상들로 고전주의를 이겨보려고 한 것이지요. 물론 이들처럼 반고전주의적 양식이 아닌 기존의 테크닉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어나간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목이 긴 성모」에는 이러한 마니에리스모 기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림 오른쪽 아래를 보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매너리즘 특유의 작위적 원근으로 작아도 지나치게 작지요. 그 뒤로 아래에 보면 여러 기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위로 성모의 옷자락 위로 보면 기둥은 하나입니다. 이는 모순 즉 여러 개이면서 하나인 것, 다자이면서 일자인 것, 죽었으나 끝없는 증식과 재생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에서의 예수를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이것은 또한 연금술에 몰입했던 파르미자니노의 말년(그래도 겨우 37세이지만)의 관심사가 투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 같은 완벽의 시대, 그 완벽이란 것은 '자연미'였던 것을 착안하여 발상을 전환해 아름다움이 하나가 아니며, 지금까지 완성한 완벽한 아름다움은 사실 '자연미'의 한 종목에 불과하고 여기 '부자연미'라는 메타적 개념을 평행적으로 탄생시켜, 오로지 유일한 개념으로 알았던 균형 잡힌 '절제미'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계기를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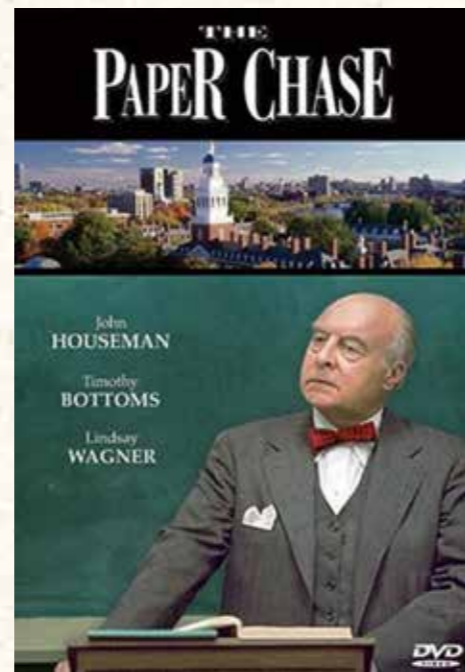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 그림으로부터-적어도 파르미자니노 시대정신으로부터- '현대미술'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그림출처

- <http://m.blog.naver.com/bluec1205/120006829179>
- <http://lifelog.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ansol21&logNo=50136239203>
-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c39E&artid=1376
-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jtsJ&artid=4874
- <http://m.blog.naver.com/lljy3414/220274549636>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하버드대 학부생들의 이야기가 아닌 법과대학원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존제이 오스본의 장편소설. 로스쿨에서 중요하다는 FIRST YEAR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The Paper Chase

저자소개



박상흠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무팀장

동아대 로스쿨 재학시절 편집장을 맡은 일을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체특성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영입은 쟁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쓰는 일과 쉽게 설명하는 법률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가장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장차 나의 꿈은 법률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수업 첫날이다. 지금 하트는 하버드 로스쿨 킹스필드 교수의 계약법 수업을 듣기 위해 헬레벌떡 뛰어가고 있다. 지각이 눈앞에 있다. 지각생을 놓칠 리 없는 킹스필드 교수는 하트에게 “호킨스 대 맥기”의 소송사건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한다. 머뭇거리며 하트에게 온갖 질문을 퍼붓던 킹스필드 교수는 그에게 수의를 입힌다. 자신의 수업에서 지각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킹스필드는 연중행사로 신입생 1명을 낙인찍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바로 하트가 된 것이다. 선배인 톱스는 수의 사건으로 인해 하트가 더 이상 킹스필드 교수에게 질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은 하트가 방과 후 아르바이트 하는 식당에까지 퍼졌다. 계약법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킹스필드 교수의 강의를 듣기 위해 멀리에서 유학 온 하트에게는 정말 슬픈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하트는 포드의 제의로 스터디 그룹에 가입해서 벨, 윌리스, 엔더슨 그리고 여학생 린다 오크너, 조나단과 함께 공부를 시작한다.

킹스필드 교수의 수업방식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방법이며 질문을 통해 법률을 터득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낙인찍힌 것과 같다. 하트는 4시간만 자고 계약법 수업을 예습했기에 킹스필드 교수에게 발표기회를 달라고 열심히 손을 들었지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생각 끝에 킹스필드 교수 연구실에 찾아간 하트. 자신이 지각한 것은 먼 미네소타에서 온 것과 직장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그리고 자명종이 늦게 울린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킹스필드는 대학원생이 할 수 있는 변명이 되지 못한다며, 변호사가 법정에 늦게 출석했을 때 판사에게 애걸할 수 있는지 되묻는다.

다음 계약법 시간이다. 킹스필드 교수는 클라크 대 마시아 사건에 대해 스와츠 군에게 설명을 들은 후 하트를 지명한다. “하트... 하트 군... 하트...” 수의를 입고 출석한 하트를 본 교수는 당황한 가운데 다시 하트의 이름을 부른다. 꿈쩍도 않는 하트의 앞으로 다가간 킹스필드는 수의를 벗겨준다. 40년의 전통이 무너지는 것이다. 수의를 벗은 하트는 그림도구 수리비를 낮게 책정하여 불완전한 수리를 한 피고에 대해 원고가 계약취소를 한 사건이라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이 사건으로 그는 하버드 로스쿨의 스타가 된다. 스터디 그룹에서도 계약법을 맡게 됐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하트의 성실함, 열정 그리고 총명함은 여학생 낸시의 관심을 끌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한다. 낸시의 아버지 버치도 하버드 로스쿨에서 킹스필드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의 수제자였다. 그의 저택에 초대받은 하트. 그러나 며칠 후 갑작스런 저격으로 아버지는 사망하고, 낸시는 충격으로 하버드를 그만두고 하트를 떠나고 만다. 학창시절의 열정과 애정이 교차하는 로스쿨의 생활 속에서 하트의 정신세계도 점점 더 성숙해간다.

킹스필드 교수는 학생들에게 1)법에는 허점이 없는가? 2)우리가 해답을 구할 수 없는 케이스는? 등의 다양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 교수는 “동굴에 4명이 갇혔다. 이들은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한명을 죽여 그의 고기를 먹고 연명해가자고 합의한다. 1명의 고기를 먹은 3명이 후에 구조되었는데 살인죄로 체포됐다.”며 벨에게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질문한다. 뚱뚱한 벨. 그는 수시로 질문하는 킹스필드 교수가 밉기만 하다. 다음시간에도 교수는 인간은 법 자체를 위반하지 않고도 법조문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는 명언의 사례를 들어보라고 벨에게 질문한다. 벨은 교수의 질문을 멈추게 하기 위해 출

“계약자의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대는 당연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계약의 파기로 인해 상대가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만일 그 상대가 손해액을 최소로 줄여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고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손해액을 최소한 줄이는 이유는 수익자가 과장해서 제약 이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부에 부착된 자신의 우둔한 사진을 떼어내기로 결심한다.

벨은 하트를 졸라 킹스필드 교수의 연구실로 침입하지만, 뜻밖의 사건으로 주말 동안 옷장에 갇히고 만다. 우여곡절 끝에 탈출하고 사진을 교체하지만 거꾸로 부착하는 실수를 해 또 다시 지명을 받고 만다



킹스필드 교수는 수업시간에 돌리 대 만 하탄 스토리즈의 사건을 학생들에게 질문하지만 모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 교수는 수업 말미에 위 사건은 자신이 만든 완전한 허구의 사례라며 오늘의 주제를 정확히 아는지 테스트해 볼 의도였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주말 과제로 호킨스 대 맥기 사건, 클라크 대 웨스트 사건, 제6장부터 제9장까지 30가지 사례의 철저한 분석과 원칙적인 범주이론을 공부해오도록 제시한다. 학생들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과제에 탄식하며

차라리 자살을 택하는 게 낫겠다고 중얼거린다.

과제를 잠시나마 피하기 위해 앤더슨은 주말에 기숙사에서 파티를 여는데... 앤더슨의 눈에 예쁜 아가씨 휘치가 눈에 들어온다.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 그는 그녀와 함께 위스키를 나눈다. 하지만 갑자기 파티장에 나타난 바람둥이 프레이가 그녀를 가로채 간다. 파티장을 나간 그 둘은 의무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데, 이들을 뒤따라간 앤더슨은 그만 학교 경찰관에게 체포되고 만다. 의무실에 침입했다는 죄명이다.

이 사건으로 교내에 청문회가 열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앤더슨은 하트에게 자신의 변론을 부탁하고, 하트는 마지못해 수락한다. 그는 앤더슨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휘치와 프레이를 찾아간다. 먼저 로스쿨 3학년 생 프레이에게 의무실 침입자는 앤더슨이 아닌 그임을 고백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다. 그리고 치과대학원생인 휘치에게도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는 앤더슨이 아니라는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또 거절당한다.

청문회의 주임판사는 킹스필드 교수였다. 학생 변호사인 하트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비원 폴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는데, 폴리는 유리창을 깨 자는 청색 바지와 노란색 셔츠를 입었고, 의무실 바닥에는 A형의 핏자국이 있었다는 증언을 한다. 하트는 경비원이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 남녀는 휘치와 프레이라고 주장한다. 킹스필드 교수는 증인신문을 하는 하트에게 추측을 배제한 요점을 말하라고 거듭 요청한다. 하트는 킹스필드 교수가 수업시간에 가르쳐 준 손해증재이론을 설명한다.

The Paper Chase

“계약자의 어느 한편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상대는 자연히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계약의 파기로 인해 상대가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만일 그 상대가 손해액을 최소로 줄여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고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손해액을 최소한 줄이는 이유는 수익자가 과장해서 계약 이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앤더슨은 결백하며 설령 저질렀다 해도 사소한 위법행위이므로 퇴학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다. 킹스필드 교수도 내심 감탄한다. 때마침 증인 출석을 거절하던 휘치도 로스쿨 여학생 로간의 설득으로 출석해 앤더슨의 결백을 증언하고, 그는 결국 혐의에서 풀려나게 된다. 청문회를 마친 킹스필드 교수가 웃음이 만연한 얼굴로 하트에게 말한다.

“자넨 운이 좋거나 천재일세.”
“교수님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수업시간에 수익을 입게 되면 참여에서 배제되는 40년의 전통을 깨트려버린 기지, 학업에 대한 열정, 친구들과의 우정, 연인과의 사랑까지. 미래의 법률가로서 꿈과 비전을 펼쳐나가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을 소개해 봤다.

특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하버드 공부벌레들 속에서 농부의 아들이었던 하트가 최고의 인재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버드 로리뷰의 편집장이었던 오바마가 연상됐다.

로스쿨 학생들에게 오바마의 저서 <담대한 희망>을 추천해주고 싶다. 책의 내용 중 헌법 편을 눈여겨 보았으면 한다. 헌법의 조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스칼리아 판사와 살아 있는 헌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브레이어 판사 가운데 브레이어의 의견에 기운 오바마가 인식하는 헌법의 세계는 항상 시대 속에 역동하는 것이다. 끝으로 그가 언급한 내용을 옮겨보자 한다.



“헌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래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일이다. 빈틈없이 짜여진 헌법의 여러 장치들, 다시 말해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 연방제 원칙, 권리장전 등은 모두 우리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견해를 현실적인 여건에 비춰 시험해보고 자신의 관점에 동의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며, 의견이 합치되는 사람들과 제휴하는 ‘토론형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창**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 연방제 원칙, 권리장전 등은 모두 우리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모든 시민은 자신의 견해를 현실적인 여건에 비춰 시험해보고 자신의 관점에 동의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며, 의견이 합치되는 사람들과 제휴하는 ‘토론형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봄이라는 계절은 그러했다. 고치 속 애벌레를 흔들어 깨우고, 움츠려있던 꽃도 활짝 피게 만들었다. 생각해보니 때가 되면 봄나물을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춘향과 몽룡을 만나게 한 것도 모두 봄이라는 계절이 발휘한 마법이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다.



10년 만에 돌아온 웰 메이드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는 서른 두 살이지만 일곱 살의 지능을 가진 '인후'가 실험을 통해 높은 지능을 갖게 된 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진실과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휴고상과 네블러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대니얼 키스의 소설 <엘저년에게 꽃을>을 원작으로 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으로 재탄생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창작 뮤지컬로 개발돼 공연되었으며, 웰 메이드 뮤지컬로 꼽힌다. 10년 만에 돌아온 <미스터 마우스>는 홍광호, 김성철, 서범석, 문종원 등 정상급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공연장소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공연기간 2017.03.09.(목) - 2017.05.01.(월)
티켓가격 R석_7만 7천원, S석_5만 5천원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Musical

play-acting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의 마지막 선택 연극 **메디아**

2016년, 배우 이혜영의 연극무대 복귀식은 화려했다. <갈매기>는 기록적인 매진사례를 달성했고,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되살아난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런 그녀가 다시 한 번 명동예술극장 무대에 올라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은 여자 메디아로 탄생한다. 사랑받던 과거의 '기억'과 이아손에 대한 사랑의 '욕망'이 치열하게 교차해 가히 도전장을 내밀기 힘든 이 역할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다. 여기에 남명렬, 김정은, 하동준, 박완규, 손상규를 비롯한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한다.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공연기간 2017.02.24.(금) - 2017.04.02.(일)
티켓가격 R석_5만원, S석_3만 5천원
홈페이지 www.ntck.or.kr

로봇공학자가 복원한 다빈치의 상상력 다빈치 코덱스展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년~1519년)는 이탈리아의 화가, 건축가, 과학자, 최초의 미래학자이자 공학자로서 르네상스의 민주주의적 이상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대표한다.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리는 <다빈치 코덱스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의 기록물인 '코덱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코덱스'가 의미하는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37년간 남긴 3만장 가량의 방대한 기록물이자, 서로 다른 장르의 융합이 실현 되어가는 극적인 과정을 담은 모든 기록물을 통칭한다.



전시장소 문화역서울 284 전관
전시기간 2016.12.23.(금) - 2017.04.16.(일)
티켓가격 성인_1만 7천원
홈페이지 <http://davincicodex.kr/exhibition-info.html>

Exhibition



공연장소 대학로 TOM 1관
공연기간 2017.02.16.(목) - 2017.03.26.(일)
티켓가격 R석_6만원, S석_4만원
홈페이지 www.instagram.com/ckh_20th

2017년 상반기, 가장 핫한 연극 연극 **남자충동**

1차 티켓오픈 이후 예매율 1위를 기록한 공연이 있다. 류승범의 연극무대 귀환으로 더욱 주목받는 연극 <남자충동>에 대한 이야기다. <남자충동>은 가부장으로 대표되는 '강함'에 대한 판타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폭력성과 그로 인한 파멸의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다소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제목과 달리 폭력의 허위를 풍자하고 폭력 충동의 심리적 과정을 포착한다. 주인공인 장정역에는 류승범과 박해수가 더블 캐스팅되어 서로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play-acting

LAWSCHOOL NEWS



베트남-하노이 법과대학 방문

1월 20일(금)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에서는 법 교육 발전과 상호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협의회 측에서는 이형규 이사장 외 다수의 법전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하노이 법과대학 측에서도 다수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베트남과 한국의 법학 교육에 대한 소개, 법학도 양성 방법과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고, 하노이 법과대학 시설 탐방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법률신문과의 MOU 체결

지난 2월 2일(목)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주)법률신문사는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고 법조인 양성제도의 발전 및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MOU는 법전문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외 이사5인, (주)법률신문사 이영두 대표이사 외 임원 5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법전문협의회 주관의 법학적성시험, 변호사시험 등의 주요사업은 법률신문 지면과 인터넷법률신문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 활용될 예정이다.

TEST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17. 3. 2 공고>

시험일시 : 2017년 8월 27일(일)
 원서접수 : 2017년 7월 4일(화) 09:00 ~ 7월 13일(목) 18:00까지
 수험표 교부 : 2017년 8월 8일(화) ~ 8월 27일(일)
 성적발표 : 2017년 9월 19일(화)

※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됩니다.
 ※ 자세한 공고는 홈페이지(<http://info.le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 워크숍

지난 2월 14일(화)부터 2월 17일(금)까지 2017년도 제1-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출제하기 위한 워크숍이 진행됐다. 서태경 교수(한양대)가 총괄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원우 교수(서울대)가 공법 영역위원장, 민영성 교수(부산대)가 형사법 영역위원장, 송오식 원장(전남대)이 민사법 영역위원장, 이희성 원장(원광대)이 선택과목 영역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워크숍에는 위원장 포함 총 85명의 교수가 출제진으로 참여했다.



제37차 이사회 및 제39차 총회 개최

지난 2월 28일(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법전문협의회 제37차 이사회 및 제39차 총회가 개최됐다. 총회에 앞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이형규 이사장 외 임원 10명이 참석해,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심의·의결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법전문의 주요 현안사항과 2017년 법전문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원장



장덕조 원장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상법
 jangdj@sogang.ac.kr



김현수 원장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법조실무, 형사소송법
 hyeon@jejunu.ac.kr



이재목 원장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민사법
 jmlee@cbnu.ac.kr



최완진 원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상법/기업법
 wjchoi@hufs.ac.kr



사형수 검사의 절박한 사투 피고인

줄거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 못한 적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력부 검사 박정우(지성).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구치소 감방이고, 그의 가슴에는 붉은 번호표가 붙어있다. 사건 이후의 기억을 모두 잃는 일시적 기억 상실에 걸린 그는 아내와 딸을 죽였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인생 최악의 딜레마에 빠진 검사의 절박하고 필사적인 투쟁이 시작된다.

뷰 포인트: 공중파 드라마밭이 황무지(?)인 요즘,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피고인>. 높은 시청률과 다르게 내용이 자꾸만 산으로 간다는 평이 많다. '눈 부라리기'와 '악 쓰기'의 적절한 클라보레이션을 선보이고 있는 지성과 1인 2역을 맡은 엄기준의 연기는 꽤 볼만 하다. 다만, 로스쿨 출신 검사인 여민경의 캐릭터를 "아빠뻘으로 로스쿨 가고 삼촌뻘으로 로펌에서 경력 쌓은 낙하산 검사"로 표현해 공분을 사고 있다.

드라마 | 18부작 | 15세이상 관람가 | 2017.01.23.~(방송중)

MOVIE & DRAMA



뒤바뀐 범인, 잃어버린 10년 재심

줄거리: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10대 소년 현우(강하늘)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한편, 돈도 뺏도 없이 빚만 쌓인 벼랑 끝 변호사 준영(정우)은 거대 로펌 대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무료 변론 봉사 중 현우의 사건을 알게 되고 명예와 유명세를 얻기에 좋은 기회라는 본능적 직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현우를 만난 준영은 다시 한 번 정의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뷰 포인트: 영화 <재심>은 2000년 택시기사가 흥기에 여러 차례 찢려 사망한 사건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관객들에게 찡한 감동을 선사한다는 호평이 많아 개봉 초부터 박스오피스 순위권에 머물고 있다. 훈훈한 두 주연배우 덕분에 안구웰빙이 절로 된다.

드라마 | 2017.02.15. 개봉 | 119분 | 한국 | 15세 관람가



가로 열쇠

- ①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填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다. 국가 사이의 특별한 협정이 없으면 외국인은 자신이 체류 중인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
- ③ 과실로 인하여 방화죄에서 말하는 물건을 소훼(燒燬)한 범죄이다(형법 제170조).
- ④ 소송계속(繫屬)중에 소송물인 권리 및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할 적격이 당사자로부터 제3자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제3자가 당사자의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다.
- ⑤ 특허권 또는 전용실용권에 대한 침해에 말한다. 특허권은 배타적·지배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게 된다.
- ⑥ 조건의 성취가 채무자의 자유의사에만 맡겨져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말한다.
- ⑦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와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범죄이다(형법 제145조).

세로 열쇠

- ① 상해의 의사를 가지고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본 죄가 성립한다.
- ② 자본주의 경제조직화의 노동관계에 대해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 ③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다툼이 되어 있는 사건의 판단을 제1심법원에 한한다는 뜻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390조1항 단서 참조).
- ⑤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3조).
- ⑦ 노동쟁의에서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개입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조력하는 것을 말한다.

가LAW 세LAW 낱말 퀴즈



문자① : 15세이상 관람가 | 119분 | 한국 | 15세 관람가

문자② : 15세이상 관람가 | 119분 | 한국 | 15세 관람가

문자③ : 15세이상 관람가 | 119분 | 한국 | 15세 관람가

			1			1		2	
						2			6
			3						
	4			3					
		4					5		
							5		
6			7						
							7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상균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송남대학교



송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